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금버금한 또래 중에서

어금버금한 또래 중에서 5학년 1반의 52명이나 되는 남녀 학생 중에서 싸움 잘하기로 으뜸인 태식이만 빼고 불알이 마치 어른 같다 해서 별명이 어른 불알인 태식이만 빼고 다른 아이들은 나의 착실한 백성, 음모도 반란도 없는 순하디 순한 백성이었지. 설령 껄적지근한 놈이 먼저 자라는 콩나물 대가리처럼 삐져나오면 콩나물 대가리에다 정조준해 박치기로 한 방, 쎈 놈은 두 방, 질긴 놈은 세 방, 그런데도 땅개라는 별명의 영만이 자식, 어른 불알보다도 무섭고 징허디 징한 땅개 같은 자식이 마치 우리 반에 충치처럼 박혀 있어서 하마터면 급장선거에서도 떨어질 뻔했지, 땅개가 길자라는 년과 눈이 맞아서 기호 2번 대철이 쪽으로 기울뻔 했지. 바라만 보아도 좋은 은경이에게 아무도 모르게 쪽지를 적어 장래 크면 은경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수작을 건 후 길자년 단속을 은근슬쩍 부탁했었지. 그런데도 우체국장 집 아들인 대철이가 워낙 예쁘고 착해 가스나들은 대철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 키 크고 공부 잘하는 은경이의 하늘같은 협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바지에 오줌 두어 방울 지리며 승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 빈 말이 아닌 진짜로 은경이와 결혼하여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을 굳히고 있는데도 나쁘디 나쁜 자식 땅개 같은 자식이 은경이에게 사탕 주며 벌쭉벌쭉 웃으며 접근하는 꼴이라니, 헤프게 선심 베풀며 싸가지 없이 수작 거는 꼴이라니.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 생각하니 어느 곳, 어디서나 어른 불알이나 땅개같이 미운 놈이 끼어있기 마련, 충치처럼 눈곱처럼 끼어있기 마련, 미운 며느리 년의 속옷 가랑이에 낀 땟국물처럼 끼어있기 마련.

어린 나이에 절집에 온 나는 어른 불알이나 땅개 같은 놈이 되기로 작심한다. 어금버금한 또래는 멀리하고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두 세 곱 위의 선배들 곁으로 다가가 키 높이를 평준화 하도록 노력했다.

함께 글 쓴다는 구실로 석성우, 김정휴, 조오현 스님 등을 자주 찾았고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하면서도 바른 길, 옳은 일이면 황소고집으로 밀어붙였다. 총무원에서 심부름을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채찍질을 이어왔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10년쯤의 선배 스님들 에게도 땅개 같은 자식, 어른 불알 같은 존재로 미운털이 되어 살았다.

그러다가 늦게야 철이 든다. 영혼이 있는지, 내생(來生)이 있는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무아(無我)는 무엇인지, 그리고 난해(難解)하기 이를 데 없는 조사어록(祖師語錄)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무치게 철이 드는 것이다.

영어를 할 줄도 쓸 줄도 모르던 나는 인도에서 3년 머물며 천민취급을 당하며 질기게도 간절심 하나로 외진 길을 걷게 된다. 말라리아의 병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향수병도 견디면서 길에서 길을 걸으며 진정한 의미의 길을 찾는 혹독하고 매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경 담장 밑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천지개벽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빛으로 충만한 환희의 세계에는 의혹도 장애도 말끔히 사라진 평화와 행복, 자유누림의 시작이었다. 찰나지간에 이룬 종교적 아름다운 체험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이었다.

진리는 편안이며 자유의 그 자체
覺者, 명예·재색으로 윤회 않는다

진리는 편안한 것이다. 평화이며 행복이며 자유 그 자체인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거나 높이 있거나 숨어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항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주변에 널려있고 생활 주변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다만, 집착의 병,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간절심 부족이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참사람을 의미한다. 명예나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언제 물어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할 일 없는 늙은이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고 있다.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며.

기신론의 핵심 내용 여래장심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중생의 여래장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을 나누어 부처의 깨달음(覺)과 중생의 미혹(惑)을 설명한다. 본문에 "일심법에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다. 총괄한다는 것은 이 두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依一心法 有二種門 一者 心眞如門 二者 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一切法 此義云何 以是二門 不相離故)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하고 이 두 문이 각각 서로 일체 법을 총괄 포섭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기신론의 요체를 일심이문으로 파악한 말이다. 일심(一心)이 바로 여래장심이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그의 소(疏)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열면 한량없고 끝없는 뜻이 되어 근본 종지(宗旨)가 되고,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 두 문 안에 수많은 뜻을 포용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의미가 일심과 하나가 되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열고 합함이 자유롭고, 세우고 허무는데 걸림이 없다. 열어도 번잡하지 않고 합해도 비좁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허물어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기신론의 저자 마명의 기묘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신론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일심 이문의 근본대의를 찬탄해 놓은 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도 일심이문에 대해 설해 놓은 말이 있다.

"일심의 법계는 두 문을 갖추어 포함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둘은 심생멸문이다. 비록 이 두 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두 문은 항상 섞이지는 않는다."

진여와 생멸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사물이 나타나 있게 되지만 생멸에 의한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망념을 떠나면 일체 차별의 경계는 없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존재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름을 붙이거나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여 궁리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 하며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직 일심일 뿐이므로 이것을 진여라 한다. 그런데 이 진여 곧 불생불멸하는 것이 생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멸과 얼마든지 화합한다. 이 이치를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이란 말로 설명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심의 심체(心體)가 변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이 인연을 따라(隨緣) 응용되는 측면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 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는 진여가 일체 차별된 모습을 떠나 있지만 동시에 인연을 따라 생멸하고,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킨다.

『능가경』에 "적멸(寂滅)한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여래장(如來藏)을 이름한다."는 말을 원효는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심진여문이라 하였고,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름한다'는 말을 심생멸문이라 해석하였다.

또 일심의 체(體)는 본각(本覺)이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기 때문에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숨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다. 또 법장(法藏)의 〈기신론의기〉에서는 원효가 말한 일심을 여래장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는 말은 진여와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진여가 무명의 망연(妄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로 전환되어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이는 체(體)에서 용(用)이 일어난 것이므로 체인 진여와 용인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를 때 여래장심이라 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인 체용불이(體用不二)가 일심(一心)의 본성이다. 마음 전체가 생멸상이 되어도 불생멸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미 아려야식에서 설명 하였듯이 진여의 불생멸과 생멸이 일심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여래장심이므로 이 여래장심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고 또한 열반이며, 범부의 일심에 의해 부처와 보살이 평등해지며 같은 경지가 되어 다 같이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비심으로 보시하리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㉑ 보살이 생각하기를

菩薩思惟。若有可願處使一切眾生身心之苦一時俱集我身。常為受之使眾生得樂不以為苦。菩薩思惟。我菩提道中住一切所有諸苦。我皆能堪忍。所以者何。眾生沒溺生死苦海我不能度脫。菩薩思惟。雖有重結使然菩提道難得。如是但有悲智二事為伴心終不疲厭。菩薩思惟。善逝所行道我今從中去。我今於世間悲心施眾生。當思惟。我如彼無異。菩薩思惟。我今為世間依救當發弘誓。願修大莊嚴智慧為善伴。我今佛慧牙將生。菩薩思惟。我欲滅眾生苦。使一切眾生得樂。欲作一切事。我常為悲心之所教詔。菩薩思惟。生死之苦聞 疲厭。悲者能得堪忍世間苦故。為悲心 何生死門。菩薩思惟。生死苦極可厭惡。欲入涅槃。大悲語言。苦惱眾生未度。云何捨棄而去。菩薩思惟。有為苦具足涅槃出世樂。我今知生死有為苦涅槃無為樂。悲心常樂三種施。

번역 | 보살은 생각하되, "만약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일시에 내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라. 항상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되 괴롭게 여기지 않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보리도(菩提道) 가운데 머물되 일체의 고통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참으리니, 어째서 그런가하면 중생이 생사고해에 빠져도 내가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비록 거듭 묶여 보리도를 얻게 함이 어렵더라도 이와 같이 다만 자비와 지혜 두 가지 일로 짝을 삼으면 마음은 끝내 피곤치 않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선서께서 행하신바 도를 내가 지금 좇아 바로 가리니, 내가 지금 세상에 자비심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리라"하며, 응당 생각하기를, "내가 저와 다름이 없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세상의 의지처가 되고 구제하려 응당 큰 서원을 발하나니, 원컨대 큰 장엄 지혜를 닦아 좋은 도반이 되며 내가 지금 부처님 지혜 싹을 내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의 고통을 멸하고 일체 중생이 즐거움을 얻도록 일체를 섬기려 하노니, 내가 항상 자비심으로 할 바를 가르치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사의 괴로움을 들으면 늘 피곤하지만 자비로운 이는 능히 참나니, 세상은 괴로운 까닭에 자비심으로 늘 생사의 문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사의 괴로움이 극히 싫어 열반에 들고 싶지만, 대자비의 말로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고서 어찌 버리고 떠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유위(有爲)의 괴로움에 열반과 출세간의 즐거움이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지금의 생사는 유위의 괴로움이요, 열반은 무위(無爲)의 즐거움임을 아노니 자비심으로 늘 즐겁게 세 가지 보시를 하리라" 합니다.

해설 | 보살이란 말이 보리(깨달음)와 중생의 합성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깨달은 중생'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깨달은 중생'이라는 의미가 더 와 닿는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저와 다름이 없다.'는 제바보살의 고백이 그지없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부처님인지 중생인지는 의미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자신도 중생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선서(善逝)는 부처님의 별칭이다. '잘 간다'는 뜻인데, '깨달음의 길로 잘 가시는 이'라는 의미이다. 제바보살은 보살이란 선서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리라는 원력을 세우는 이며, 자비심으로 보시하리라 다짐하는 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얽매인 중생과의 동질성을 고백하면서 한편, 부처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